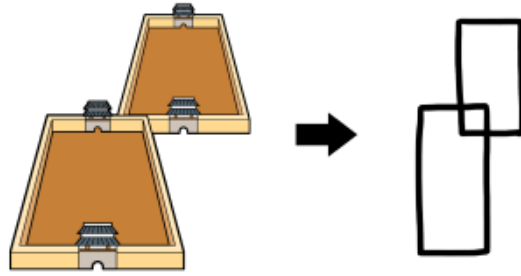


4(2)
-
21

회의문자 ①



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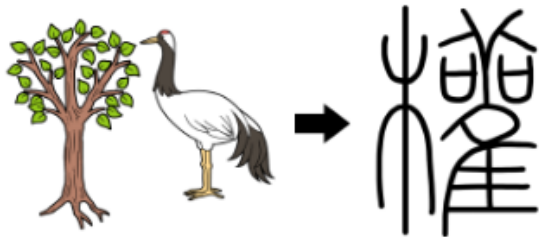
宮자는 '집'이나 '대궐', '궁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宮자는 宀(집 면)자와 呂(등뼈 려)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서는 여러 형태의 宮자가 등장하고 있다. 어떤 것은 네모가 서로 연결된 𡩺 모습이고 또 다른 것은 여기에 宀자가 𡩺 더해져 있었다. 이것은 여러 채의 큰 집이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이다. 바로 '대궐'이다. 금문에서는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던 모습에 宀자가 더해지게 되었고 소전에서는 이것이 다시 呂자로 바뀌면서 지금의 宮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宮자에 쓰인 呂자는 '등뼈'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집 궁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22

회의문자 ①



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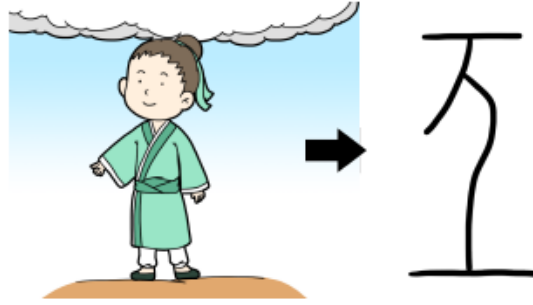
權자는 '권세'나 '권력', '권한'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權자는 木(나무 목)자와 權(황새 관)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權자는 눈이 큰 황새를 그린 것으로 '황새'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 權자는 황새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모습을 표현한 글자라고 할 수 있다. 황새는 자태가 아름다워 예로부터 기품이 있는 새로 알려져 있다. 權자는 이렇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황새의 자태를 빗댄 것으로 '위세'나 '권세'를 뜻한다.

권세 권

소전	해서

4(2)
-
23

회의문자①



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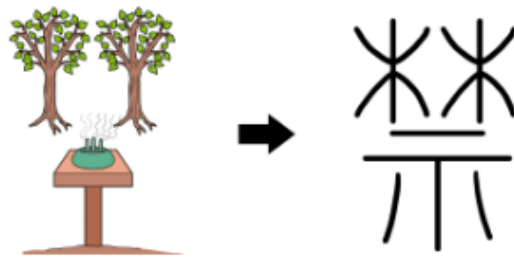
다할/극
진할 극

極자는 '다하다'나 '극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極자는 木(나무 목)자와 𠂔(빠를 극)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러나 갑골문에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極자가 그려져 있었다. 갑문에서는 땅을 딛고 머리로 하늘을 받치고 있는 거인이 𠂔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늘까지 '다다라 있다.' 즉 '극에 달하다'라는 뜻이다. 금문에서는 여기에 口(입 구)자와 攴(칠 북)자가 𠂔 더해지면서 세상을 호령하는 모습을 표현하게 되었고, 소전에서는 木자가 더해지면서 기둥이 하늘을 떠받치고 있음을 뜻하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4(2)
-
24

회의문자①



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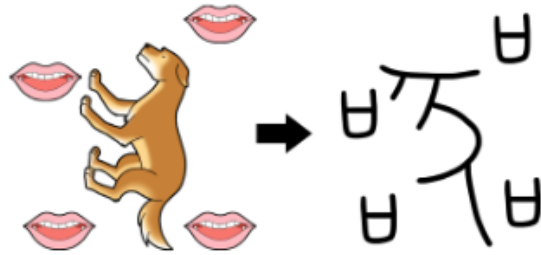
금할 금:

禁자는 '금하다'나 '억제하다', '삼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禁자는 示(보일 시)자와 林(수풀 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갑골문에 나온 禁자를 보면 수풀 앞에 제단이 놓여있었다. 먼 옛날 중국인들은 숲속에는 귀신이 활동한다고 여겨 함부로 들어가는 것은 삼갔었다. 禁자는 그러한 의식이 반영된 글자로 귀신이 출몰하는 장소인 林자에 示자를 결합해 '금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소전	해서

4(2)
-
25

회의문자①



器

그릇 기

器자는 '그릇'이나 '접시', '도구'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器자는 犬(개 견)자와 네 개의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器자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개고기를 그릇에 담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개가 귀한 그릇을 지키는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모두 口자를 그릇으로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금문에 나온 器자를 보면 마치 개가 마구 짚어대는 𠂔 모습으로도 보인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器자가 본래는 '개가 짚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 예서(隸書)에는 工(장인 공)자가 쓰인 器(그릇 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후대에 器자가 器자로 잘못 옮겨진 것은 아닌가 한다.

𠂔

금문

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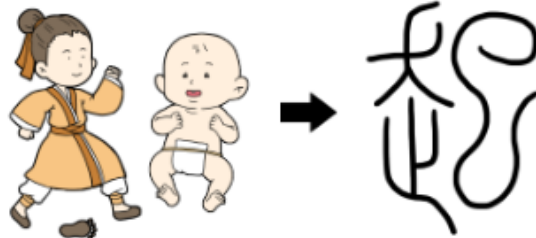
소전

器

해서

4(2)
-
26

회의문자①



起

일어날
기

起자는 '일어나다'나 '(일을)시작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起자는 走(달릴 주)자와 己(자기 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그런데 起자의 소전을 보면 己자가 아닌 巳(뱀 사)자가 그려져 있었다. 巳자는 몸을 웅크리고 있는 태아를 그린 것이다. 본래 起자는 아이가 첫걸음을 떼기 위해 몸을 일으켜 세운다는 뜻을 표현한 글자로 갓난아기를 그린 巳자가 응용되었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는 己자가 발음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起자로 바뀌게 되었다.

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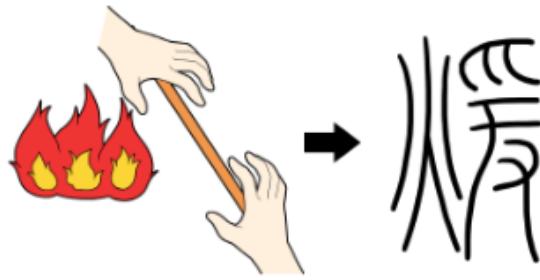
소전

起

해서

4(2)
-
27

회의문자①



暖

따뜻할
난:

暖자는 '따뜻하다'나 '따뜻한 기운'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暖자는 日(해 일)자와 爰(이에 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爰자는 누군가에게 막대기나 줄을 건네주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그런데 소전에서는 火자가 들어간 煖(따뜻할 난)자가 쓰였었다. 그래서 煖자의 조합으로만 보자면 마치 양손을 펼쳐 모닥불을 쪼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해서에서부터는 暖자가 '따뜻하다'나 '따뜻한 기운'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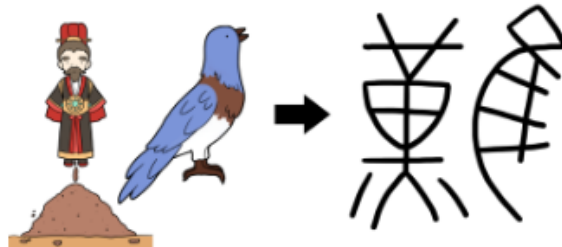
소전

暖

해서

4(2)
-
28

형성문자①



難

어려울
난(·)

難자는 '어렵다'나 '꺼리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難자는 堇(진흙 근)자와 隹(새 추)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堇자는 진흙 위에 사람이 올라서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근→난'으로의 발음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難자는 본래 새의 일종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그러나 일찌감치 '어렵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새를 뜻했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다면 새의 일종을 뜻했던 글자가 왜 '어렵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일까? 혹시 너무도 잡기 어려웠던 새는 아니었을까? 가벼운 추측이기는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지만은 알아 보인다.

難

금문

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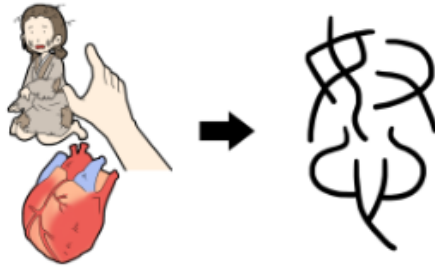
소전

難

해서

4(2)
-
29

회의문자 ①



怒

怒자는 '성내다'나 '꾸짖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怒자는 奴(종 노)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奴자는 손으로 여자를 잡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노예'나 '종'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종'을 뜻하는 奴자와 心자가 결합한 怒자는 종에게 화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고대에는 노예를 말하는 짐승에 비유할 정도로 함부로 다루었다. 怒자는 그러한 의미를 담은 글자로 노여움의 대상이 되었던 노예를 응용해 만들어졌다.

성낼 노:

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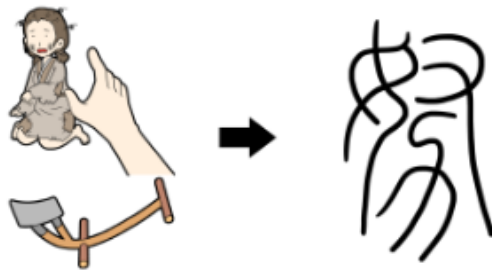
소전

怒

해서

4(2)
-
30

회의문자 ①



努

努자는 '힘쓰다'나 '부지런히 일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努자는 奴(종 노)자와 力(힘 력)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奴자는 여자 종을 부리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종'이나 '노예'라는 뜻이 있다. 노예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밤새도록 일하는 것도 모자라 화풀이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奴자에 心(마음 심)자가 더해지면 怒(성낼 노)자가 되는 것이고 노예의 숙명처럼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것은 努라고 한다. 그러니까 努자는 노예처럼 열심히 일한다는 뜻이다. 실제 쓰임에서는 勞(일할 노)자가 뜻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아서 努자와 관련된 단어는 거의 없다.

힘쓸 노

努

소전

努

해서